

“완도에서 실속있고 알찬 여름휴가 즐기세요”

내달 7일부터 ‘섬의 날’ 기념행사 ‘치유페이’ 경비 최대 21만원 지원

전라남도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반값 여행 지원 혜택 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12일 신지 명사 십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25일 금일, 보길 예송리 등 관내 해수욕장 10개소가 개장한다.

8월7일부터 10일까지는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전야제를 시작으로 박명수의 라디오 쇼 공개방송, 하현우, 안성훈, 권진아, 박서진, 박지현 등이 출연하는 트로트와 특별 콘서트 등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한 여름밤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에서 여름휴가를 즐기고 ‘완도 치유페이’를 받으면 반값 여행으로 가게 부

담도 줄일 수 있다.

‘완도 치유페이’는 2인 이상의 관광객이 완도 관광지를 방문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비 금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원 상당의 쿠폰 또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관광 정책이다.

보길, 청산도 등 7개 섬 지역 1곳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증빙할 경우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관광객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혜택을 더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에는 신청자 본인 1개 카드의 영수증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신청자 또는 동반인 카드 영수증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관광객 발길을 전 지역으로 유도하고 균형 있는 관광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완도치유페이를 통해 23억8970만원의 소비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억6750만원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

총 소비 금액은 3월 2억6000만원에서 5월 12억6000만원으로 약 4.7배 증가했다.여행 경비 지원 신청 역시 870팀에서 3577팀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 ‘완도 치유페이’ 참여도도 높았다.

관광객 소비 분석 결과 식당에서 7억 9000만원, 특산품 매장에서 5억 8000만원, 숙박에서 4억3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름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해양치유와 문화, 레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를 마쳤다”며 “완도 치유페이를 활용하면 실속있는 여행을 할 수 있으니 올여름은 완도로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영암군, 입식테이블·경사로 지원 18일까지 참여 음식점 모집

전라남도 영암군은 오는 18일까지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참여 음식점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영암군민과 방문객이 지역 음식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영암군은 신청 음식점의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지원 업소를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입식테이블 1개와 의자 4개 1세트 기준 자부담 50% 포함 최대 20만원, 경사로 설치비용 최대 80만원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 안내는 영암군 관광과 먹거리위생팀(061-470-2796)에서 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자녀 연령대별 부모교육 운영 영암군, 25일까지 선착순 접수

전라남도 영암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2025년 부모교육’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의 기질과 성향을 이해하고, 부모-자녀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사와 체험활동, 전문가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연령대별로 세 차례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1차 교육은 8월1~2일 유아~초등 저학년과 (조)부모 15팀이 참여한다.

첫째 날에는 자녀 특성을 이해하는 TCI 기질검사, 둘째 날에는 부모와 자녀가 교감을 나누는 화덕 피자 만들기 체험이 이어진다. 같은달 8~9일 열리는 2차 교육은 초등 고학년~중학생과 (조)부모 15팀이 모여 자녀성향 분석 LCSI 성격검사, 화덕 피자 만들기에 나선다.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1월의 3차 교육은, 전문가 초청 강연이다. 1~2차 교육은 (조)부모 1명과 자녀 1명이 한 팀을 이뤄 검사와 체험을 진행하며 부모-자녀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QR코드로 할 수 있고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영암군 인재육성팀(061-470-2254)에서 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지난 9일 목포시 용해동 새마을협의회 직원들이 용해동 일원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용해동 새마을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9일 쾌적하고 청결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제조 작업과 쓰레기 수거 등 청결활동을 실시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용해동 일대의 공원, 도로변, 공터 등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생활 쓰레

기 및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마을가꾸기에 앞장섰다.

이재우 회장은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

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 정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상희 용해동장은 “폭염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청년 실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생성형 AI 활용법 교육 등

전라남도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실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ing’을 운영 중이다

고 13일 밝혔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센터가 주도적으로 청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청년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재테크, 건강관리, 요리, 이미지메이킹,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7월에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특강 ‘아빠가 알려주는 생활 재테크 지식’, 원도심 명소에서의 스냅사진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진 핫플레이

스’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청년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밖에 요리 실습, 이미지메이킹, 생성형 AI 활용법,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관계자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원어민 동반 체험 영어 수업 운영 목포영어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영어도서관은 오는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유아(6~7세),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여름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영어 수업으로 구성됐다.

‘미국 써머캠프 체험교실’은 영어로 미국 캠프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이며, ‘사부작사부작 영어독서교실’은 주제에 맞는 영어 그림책 읽기, 어휘 학습,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학년별로 진행된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해외여행에 유용한 영어 표현을 배우는 ‘Welcome aboard!’, 노래와 시를 통해 감성적으로 영어에 접근하는 ‘Music & Poetry’, 영화를 감상하며 실생활 영어와 문화까지 함께 익히는 ‘Cinema English’ 등 총 3개 과정이 운영된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영어 실력 향상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www.mokpolib.or.kr)을 통해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목포영어도서관(061-270-3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합동점검 강진군,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전라남도 강진군과 강진경찰서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10일 관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하계휴가 기간동안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설물 관리상태 확인 △탐지장비를 이용한 불법카메라 단속 △안심 비상벨 및 CCTV 점검 등을 이행했다.

현재 군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주요 공중화장실 42개소에 경찰 상황실과 연동되는 안심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 공중화장실 28개소에 안심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하계휴가 기간을 맞이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강진경찰서와 협력해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